

◆사례발표

## 고립없는 지역을 만드는 육아와 함께하는 다양한 어프로치



모리타 게이코 (森田 圭子)

NPO법인 와코 육아 네트워크 대표  
와코시(和光市) 교육위원장

### □사이타마현(埼玉縣) 와코시(和光市)의 장소·인구

- 도쿄(東京)와 경계를 접하는 도시 ~ 교통이 편리한 도시(전철로 15분이면 도쿄의 부도심 이케부쿠로(池袋))
- 인구 7만8000명·평균 연령 38세·면적 11km<sup>2</sup>
- 단독 세대나 핵가족이 많다 (2.2명/1가구), 자치회 가입율은 50%이하
- 어린이 인구는 증가 경향(5위/805시읍면)
- 연간 총인구의 10%는 전출입~증감이 많은 도시  
친척이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도시에서 처음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고립된 가족·연계성이 희박함 → 육아 세대가 많은 콤팩트한 지역

### □육아 가정의 현상

어머니 세대의 변화(출생 연령 2000년→2008년  
20세~24세 35.4%→24.9%  
35세~44세 14.7%→24.5% )

육아에 다소나마 부담감이 있다

(전체 65.3% 아버지 55.7% 어머니 70.3% 「2005 어린이 미래재단조사」)  
부담으로 느끼는 것(2005 어린이 미래재단조사)  
「아이의 생활습관교육이나 아이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자신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적다」  
「아이에게 드는 양육비」

「양육에 따르는 체력적 부담」

「지금이라도 (1년이내) 일하고 싶다」 (17.6% 2008 와코어린이플랜)

「만약의 경우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22.5% 2008 와코어린이 플랜)

어머니의 목소리> 사회에서 뒤떨어지는 느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육아 자원의 이용 격차, 아버지의 육아 참가도의 격차,  
경제격차, 지진 재해후의 사회에의 불안감, 장래의  
불안으로부터 오는 육아 방침의 격차, 등등

가족의 가치관의 다양화, 환경격차, 고립 요인의 증가

○우리들의 활동 미션

(어린이가 자라서, 사는 장소가 넓어지면서 보이게 된 것 )  
혼자 키우는 육아로부터 함께 키우는 육아에 「당사자끼리의 육아 지원」  
→어른도 어린이도 풍요롭게 사는 육아에 쉬운 도시 조성

○우리의 가족(육아)지원 방침

- ①고립되지 않는다 ~얼굴을 보이는 관계로...심각한 사태에 이르는 것을 방지한다
- ②어린이를 보호하는 사람 · 부모(당사자)를 지원한다. (상부상조)
- ③유아기부터 가족이 지역과 연결된다 ⇒장래까지의 연계~안전네트워크

**□가족이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가족이 선택하는 다양한 채널을 지역에 만들어 낸다**

- 육아 살롱...부모가 자기 나름대로의 육아방법을 찾으려는 것을 긍정하고 강점을 길러 자신을 회복해가는, 어린이가 집단 속에서 커가는 피어·서포트의 부모와 자식의 장  
→ 육아지원거점모임광장 목련하우스로 발전 (2004 년부터)  
평일 10~16 시 개소· 제 3 토요일도 개소•년간 방문자 약 8500 명  
임상심리사에 의한 슈퍼바이저·하이 리스크  
가정의 관찰 보호(전문기관과 함께)

- 다양한 정보제공~정보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방지한다  
정보지, 웹 사이트, 메일 매거진→휴대폰의 보급율 80% 넘는다
- 아빠 그룹(육아중의 아버지의 네트워크)~육아 참가 의식을 기른다  
연계를 힘으로 만들어 가는 아빠들 →일과 육아~워크라이프 밸런스의 의식
- 모험 놀이터 「어린이의 자주성 창조성을 존중하여 놀이의 제한이 적은 놀이터」 중요한 어른의 역할~규제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지역의 10 대로부터 70 대까지의 지역의 지지자·세대차을 극복해서 따뜻한 교류

◎활동의 전개는 유대의 전개로, 어머니만이 아니라 가족에서 지역사회까지 「육아의 시점」 ~육아를 사회화하기 위한 계발의 측면

☆그러나...거점에서 밖으로 눈을 돌릴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육아 지원의 장소에 나올 수 없고 지역의 정보가 없어 고립되어 있는 층  
거점형의 서비스와 기능을 보완 확충하는 것 ~ 찾아가는 지원→아웃  
리치(지원 활동)**

- 전화 상담(와코와코넷육아 전화)매월 제 2 주 월~금 자원봉사 양성
- 외국인 부모와 어린이의 서포트 지원(육아중의 동료나 송영이나 정보를 전달해 가는 지원)피어•서포트의 효과
- 아웃 리치~영국에세 탄생한 구조  
가정 방문형 육아 지원 홈 스타트 시작  
「부모가 부모를 서포트한다」 양성 강좌를 수료한 지역의 육아 경험자가  
주 1 회 2 개월정도, 무상으로 방문하고, 친구처럼 다가가며 「경청」  
(이야기 듣기)이나 「협동(協動)」(함께 무엇인가를 한다)등의 활동 지도나  
대행 서비스가 아닌 지역 주민의 프렌드십(Friendship)•신뢰 관계에  
기초로하는 피어 서포트

왜, 홈 스타트인가? 그것은, 이하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 ①전문성을 가지는 오거나이저(organizer)를 전문적으로 양성해 플로우업(follow-up)이 있다.
- ②방문 자원봉사 양성이나 그 서포트를 위한 연수 커리큘럼이 있다.
- ③케이스 어세스먼트(assessment) 등 지원의 질을 계속 평가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양식이나 구축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직 구성이 있다.
- ④지속하기 위한 행정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육아 지원에 없어서는 안되는 행정•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동  
○학대 방지 대책~요보호 아동대책협의회의 일원으로서  
기능의 보완 확충을 위한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역할을 나누어서 정보를  
교환해 팀으로 관계되는 것의 효과

선에서 면으로... 지원의 확충,  
네트워크화된 보다 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해서

지역에서 신뢰받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

→ 새로운 공공의 담당자의 자각과 실적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어린이도 어른도 well-being 을 목표로 하는 조직만들기

## 프로필

모리타 게이코 (森田 圭子)

NPO법인와코 육아 네트워크 대표 이사  
와코시(和光市) 교육위원장

## 경 력

미야자키현(宮崎縣) 출신. 대학때 동경으로 상경,  
결혼후 사이타마현(埼玉縣)에 거주. 남편, 아들 둘의 4인핵가족.  
전근으로 오사카(大阪)에 살다가 그 후 와코시(和光市)에 전입.

1999년 와코시(和光市) 남녀공동 참여 정보지 오르골(orgel)의 편집 위  
원이 되어,  
2000년5월 지역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와코 육아 네트워크」의 활동을  
시작  
2004년에 NPO법인자격을 취득하고, 5월부터 모임 광장 목련 하우스를  
운영.  
2006년에 사이타마현(埼玉縣) 육아지원거점 가이드 라인 책정에 관여함.

2008년부터 전화 상담이나 홈 스타트 가정 방문형 육아 지원, 외국인방  
문 서포트 활동을 시작.

어린이에의 폭력방지 프로그램(CAP프로그램)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가정 방문형 육아 지원 홈스타트재팬 이사,  
와코시(和光市) 교육위원장,  
사이타마현(埼玉縣) 아동 복지 심의회위원,등.

◆事例発表

## 孤立しない地域を作る 子育てに寄り添う多様なアプローチ



森田 圭子 (もりた けいこ)

NPO法人わこう子育てネットワーク代表理事  
和光市教育委員長

### □埼玉県和光市の場所・人口

- ・東京と境界を接する街～交通の便利なまち（電車で、15分で大都市池袋）
- ・人口7万8千人・平均年齢38歳・面積11 k m<sup>2</sup>
- ・単身世帯や核家族が多い（2.2人/1世帯）、自治会加入率は50%以下
- ・子ども人口は増加傾向（5位/805市町村）
- ・年間総人口の1割は転出入～出入りの多いまち  
親戚や頼りにできる知り合いがいない街で初めての子育てをする人々

孤立した家族・つながりが薄い → 子育て世帯の多いコンパクトな地域

### □子育て家庭の現状

母親の世代の変化 出生年齢 2000年→2008年  
20歳～24歳 35.4%→24.9%  
35歳～44歳 14.7%→24.5%

子育てに多少なりとも負担感がある

全体65.3% 父親55.7% 母親70.3%

(2005子ども未来財団調査)

負担に感じること (2005子ども未来財団調査)

「子どものしつけや子どもへの接し方が適切にできているか」

「自分の自由に使える時間が少ないこと」

「子どもにかかっている養育費」

「子育てにかかる体力的負担」

「すぐにでも（1年以内）働きたい」（17.6% 2008 わこう子どもプラン）

「いざというとき預けられる人がいない」（22.5% 2008 わこう子どもプラン）

母親の声> 社会からの取り残され感、相談できる人がいない、  
子育て資源の利用格差、お父さんの育児参加度の格差、  
経済格差、震災後の社会への不安感、  
将来の不安からなる子育て方針の格差、等々

家族の価値観の多様化、環境格差、孤立の要因の増加

○私たちの活動ミッション

(子どもが育ち、暮らす場が広がり見えてきたもの)  
ひとりの子育てからみんなの子育てへ「当事者同士の子育て支援」  
→ 大人も子どもも豊かに暮らす 子育てしやすいまちづくり

○私たちの家族(子育て)支援の方針

- ①孤立しない～顔の見えるつながりを…深刻な事態に至るのを防止する
- ②子どもを保護する者・親(当事者)を支える(支え合う)
- ③乳幼児期から家族が地域とつながる  
⇒ 将来までのつながり～セーフティネット

□家族が孤立しないために家族が選ぶ多様なチャンネルを  
地域に作りだす

○子育てサロン

…親が自分なりの子育てを見つけようとしていくのを肯定し強みを育て  
自信を回復していき、子どもが集団の中で育っていくピア・サポートの親子の場  
→ 子育て支援拠点つどいの広場もくれんハウスに発展(2004年から)  
平日10～16時開所・第3土曜日も開所・年間来場者約8500名  
臨床心理士によるスーパーバイズ  
ハイリスク家庭の見守り(専門機関とともに)

○多様な情報提供～情報から孤立するのを防ぐ

情報誌、ウェブサイト、メールマガジン→携帯の普及率80%を超える

○パパ組(子育て中の父親のネットワーク)～育児参加意識を育む

つながりを力にしていくパパたち→仕事と子育て  
～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の意識

○冒険遊び場「子どもの自主性創造性を尊重して遊ぶ制限の少ない遊び場」

重要な大人の役割～規制しないことの重要性  
地域の10代から70代までの地域の支え手・世代間のギャップを  
乗り越えて温かい交流

◎活動の広がりはつながりの広がりへ

- ・母親だけでなく家族からコミュニティまで「子育てへのまなざし」  
～子育てを社会化するための啓発の側面

☆しかし…拠点から外へ目を向ける必要性を強く感じ始めた。2008年から

子育て支援の場に出てこられない 地域で情報がなく孤立している層  
拠点型のサービスと機能を補完拡充するもの～届ける支援 → アウトリーチ

○電話相談(わこわこネット子育て電話)毎月第2週月～金 ボランティア養成

○外国人親子のサポート支援 (子育て中の仲間が送迎や情報を届けに行く支援)  
ピア・サポートの寄り添い感の効果

○アウトリーチ～英国生まれの仕組み

家庭訪問型子育て支援ホームスタート開始

「親が親をサポートする」養成講座を修了した地域の子育て経験者が週1回2ヶ月程度、無償で訪問し、友人のように寄り添いながら「傾聴」（話を聴く）や「協働」（一緒になにかをする）などの活動 指導や代行サービスではない地域住民のフレンドシップ・信頼関係に基くピアサポート

なぜ、ホームスタートか。それは、以下のシステムがあるから

- ①専門性を持つオーガナイザーを専門的に養成しフォローアップがある。
- ②訪問ボランティア養成やそのサポートのための研修カリキュラムがある。
- ③ケースアセスメント等支援の質を継続評価管理するために使用しなくてはならないツール（様式）や構築しなくてはならない組織構成がある。
- ④継続のために行政との連携が求められる。

☆子育て支援に欠かせない行政・関連機関との連携・協働

○虐待防止対策～要保護児童対策協議会の一員として

機能の補完拡充のための他サービスとの連携・役割を分けて情報交換しチームで関わることでの効果

線から面へ…支援の拡充、

ネットワーク化されたよりよい地域づくりのために

地域から信頼される団体になるために

→ 新しい公共の担い手の自覚と実績

子どもの最善の利益のために

～子どもと大人もウェルビーイングを目指す組織作り

## プロフィール

森田 圭子（もりた けいこ）

NPO法人わこう子育てネットワーク代表理事  
和光市教育委員長

### 経 歴

宮崎県出身。実家は寺院。大学で上京、結婚後埼玉県に居住。  
夫、息子二人の4人核家族。

転勤でいったん大阪に住まいその後和光市へ転入。

1999年和光市男女共同参画情報紙おるごーるの編集委員となり、  
そこで出会った同じ子育て中の親たちと

2000年5月地域で子育てを支えあう「わこう子育てネットワーク」の活動を  
開始した。

2004年にNPO法人格を取得し、5月よりつどいの広場もくれんハウスを運営。

2006年に埼玉県子育て支援拠点ガイドライン策定にかかわる。

2008年から電話相談やホームスタート家庭訪問型子育て支援、  
外国人訪問サポート活動始める。

子どもへの暴力防止プログラム（CAPプログラム）ファシリテーター  
家庭訪問型子育て支援ホームスタートジャパン理事  
和光市教育委員長、  
埼玉県児童福祉審議会委員、など